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 4:12-13*

오랜동안 이곳의 소식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늘 아끼지 않으시는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저런 잔병으로 작년부터 자주 몸앓이 소리를 했었는데 10 월경 가슴이 많이 아파서 응급실에 들어갔다 나온 후 의사의 지시로 여러가지 검사를 받던 중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심장과에서 각종 검사를 하면서 20 여일을 병원에 있었으나 정확한 진단을 못 하고 외견상 안정된 것 같으며 퇴원하게 했으나, 퇴원후 계속 다른 검사들을 받다가 심장부정맥 문제가 있다면서 확실한 장애문제를 진단하기위해 가슴에 심장박동을 모니터링하기위한 기기부착수술을 열흘전에 했습니다.

치료를 위한 수술도 아니고 검사를 위한 수술인데도 수술은 수술인지라 아직껏 환자마냥 움직이기에 어려움이 많네요.

이곳의 소식전함과 기도부탁을 드리고져 이렇게 오랜만에 자판을 치면서 빌립보서 4장을 통해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모든 상황에서의 자족하는 신앙의 위대함을 묵상합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자족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이겨내는 귀한 일들이 동역자님들과 저의 삶에 더 많은 증언으로 기록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구아디따의 바울선교교회는 카톨릭의 전통속에 교회를 멀리하기만 하는 지역민들의 선입관속에서도 싹이나고 움이 터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미동부 기아대책기구에서 임원 목사님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목사님들의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아동들의 가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보시고 기도해 주셨으며 바쁜 일정에도 멜갈의 바울선교 어린이 교회까지 방문해 주셨는데 동네에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러 명의 외국인 손님들에 대한 호기심과 낯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랑의 선물들에 함박웃음 꽃이 피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특히 바울선교교회의 구스타보 전도사 임명식을 인도해 주셨는데 성도들과 지역민들은 임명받은 구스타보 전도사를 축하해 주면서 감사와 감격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먼 곳까지의 귀한 방문은 저희에게도 그렇게 큰 힘과 위로가 됐습니다.

10 여명의 성도들이 세례도 받았는데 특히 로레나 자매의 가정은 카톨릭교회를 고집하던 아버지까지 개종하셔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고, 부모형제들은 아직껏 세례 받기를 주저하는 가정에서 가장 어린 막내동이 3학년 어린이가 세례받기를 고집하고 세례학습기간엔 늘 가장 먼저 교회에 도착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누지 못하는 동네 어르신들의 점심식사 대접은 식사 한 끼 이상으로 노인분들의 위로가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탄을 기해서 작은 잔치자리를 마련했는데 성탄모자를 쓰고 어린이들마냥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에게 내년에도 더욱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적은 수의 성도임에도 어르신들을 섬기고 어린이들의 급식을 위해 봉사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말이 아닌 행동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슬로건으로 하여 한 해동안 하나님 자녀로서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년초에는 성도들중 집을 소유한 분들 다섯가정을 선정해서 집수리를 도와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 할아버지 가정은 낡은 판자에 지붕도 썩은 나무들과 비닐로 덮여져 있어서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궁색하기만한데도 어찌 할 도리가 없었는데 이번 집 수리 사역을 통해 지붕을 새로 덮었고 다른 가정들도 화장실 건축, 방바닥 수리, 주방과 방 건축등을 했습니다.

교회는 자재를 협력해 주고 다섯가정들이 인력을 십시일반해서 집 수리를 하고나니 성도들간에도 더욱 교제의 기회가 되고 서로를 돌아보는 풍족한 마음의 잔치기간 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다섯쌍의 부부들 모두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오랜 동안 쌓인 문제들은 부부의 삶이라기보다는 그저 사는 날까지 산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진보도 어렵고 그리스도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축복누림도 어렵기만 합니다.

제 1차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가정들마나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현재는 제가 수술 회복기에 있고 구스타보 전도사 역시 열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중이라서 세미나만 마친 상태인데 동역자님들의 중보에 부부 회복, 가정회복을 위해 기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바울선교 어린이 교회가 있는 멜갈은 더운 지방인데, 지금 모기로 인한 치쿱구냐 라는 병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열대지방에서 모기에 의해 발생하는 병인데 아시아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길게는 6개월의 잠복기를 보이는 이 병은 온 관절이 아프고 두통과 위통등을 동반하며 때로는 죽을 수도 있대네요.

구스타보 전도사는 그은 열흘간을 앓고 있고 멜갈의 사역장을 방문하는 디멜사 자매도 어제부터 병 증세를 보입니다.

바울선교 어린이 교회가 있는 지역이 특히 빈민촌의 열악한 환경이다보니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사역에 어려움이 많기만 합니다.

오늘은 젠리 자매가 사역장을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거의 모두가 한꺼번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었는데 여러 사역일정들에 어려움이 많지만, 아마도 저희들을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다지셔서 말과의 경주에도, 요단의 창일함에도 넉넉히 이길 힘있는 증인 삼으시려하심 같네요.

2012년 현대건설이 3년간의 계획으로 고등학생 여자배구단을 후원하는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배구단 후원사업을 마감하면서 다시 교육후원사업을 단기간 지원하고자 해서 소아차라는 지역에 방과후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센터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전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되지만, 역시 저희의 가장 큰 소망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심어주는 것 입니다.

작년에 멜갈의 학교에서 복음집회를 열고 집회후 4개월간 6개반 약 200여명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올해도 역시 산타리타 분교에서의 말씀사역을 계속하게 됐고 산타이사벨 분교에도 주일회 어린이 사역을 목표로 선생님과 연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타이사벨 분교의 선생님이 독실한 카톨릭신자이셔서 저희가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네요.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하고 말씀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중보부탁드립니다.

어린이사역을 통해 교육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중에서 세 명의 여학생이 어린이 사역의 도우미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전달하고자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그들을 말씀으로 더욱 무장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장차 지속적으로 배출될 미래의 지도자들이 저희에게 맡겨진 숨겨진 보석이기에 늘 기대감과 두근거림속에 이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멜갈과 아구아디따의 어린이 예배 모임)

주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12 제자를 챙기신 것 처럼 우리 가운데 작은 제자들도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기다림의 시간을 꾸미고 있습니다.  
동역자님들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이 지금은 너무도 더디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가운데 언젠가 놀라운 열매들로 보여질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5 년 3 월 15 일 콜롬비아에서 김 혜 정 선교사 올림

기도부탁드립니다.

1. 바울선교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2. 어린이 사역을 통한 가정구원과 차세대의 지도자 양성
3. 선교사와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
4. 사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하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5. 새로운 방과후 센터를 통해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성취되도록
6. 바울선교회 전체수련회를 위해 귀국하게 되는데 고국방문을 통해서 영적충전뿐 아니라 건강회복,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7. 와병중이신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지 않도록